

광주시청 전웅태 근대5종 사상 첫 메달 사냥 나선다



광주시청 전웅태가 대한민국
근대 5종 올림픽 출전 사상 첫
메달을 한한 도전을 시작한다.

근대5종은 펜싱과 수영, 승마, 육상, 사격을 모두
치른 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정하는 경기로 우리나라
는 아직 올림픽에서 이 종목 메달을 딴 적이 없다.

선수 한 명이 에페로 풀리그를 치르고 자유형으로
200m를 헤엄친다. 말을 타고 12개의 장애물을 넘는 승마를 마치면 800m 트랙을 4바퀴 돌며 20발의 총을 쏘는 레이저런까지 모두 소화해 5종목 합산 성적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한국의 올림픽 근대5종 최고 성적은 1996년 애틀랜타 김미섭, 2012년 런던 정진화(LH)의 11위다.

우리나라는 5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대회 근대5종 남자부에 전웅태와 정진화, 여자부 김세희(BNK저축은행)와 김선우(경기도청)가 출전해

아시안게임·월드컵 우승 등 유력한 메달 후보

수영 선수 출신에 레이저 런 강점…오늘 출격

메달에 도전한다.

전웅태는 2018 시즌 국제근대5종연맹 최우수선수, 정진화는 2017년 세계선수권 개인전 우승 등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대회 메달 후보로 꼽힌다. 전웅태는 2016년 3월 리우에서 올림픽 리허설 격으로 열린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혁성처럼 등장, 한국 근대5종의 숙원인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안길 후보로 급부상했다.

수영 선수 출신이면서 레이저 런에 특히 강점을 보여온 전웅태는 펜싱과 승마를 같고 닦으면서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기 시작했다.

2018년 국제근대5종연맹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우승, 4차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월드컵 파이널에선 2위에 올랐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개인전 정상에 올라 한국의 간판으로 입지를 다졌다.

시즌을 세계랭킹 1위로 마치며 그해 UIPM 시상

식에선 연간 최우수선수상까지 받아 정상급 선수 반열에 올랐다.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 중 가장 먼저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절지부심 준비한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 영향으로 1년 더 미뤄지고 국제대회도 열리지 못했지만, 단단해진 전웅태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독특히 때를 기다린 그는 국제대회 재개 이후 올해 4월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메달 후보다운 기량을 입증했다.

1995년 8월 1일생인 전웅태는 공교롭게도 생일에 결전지 땅을 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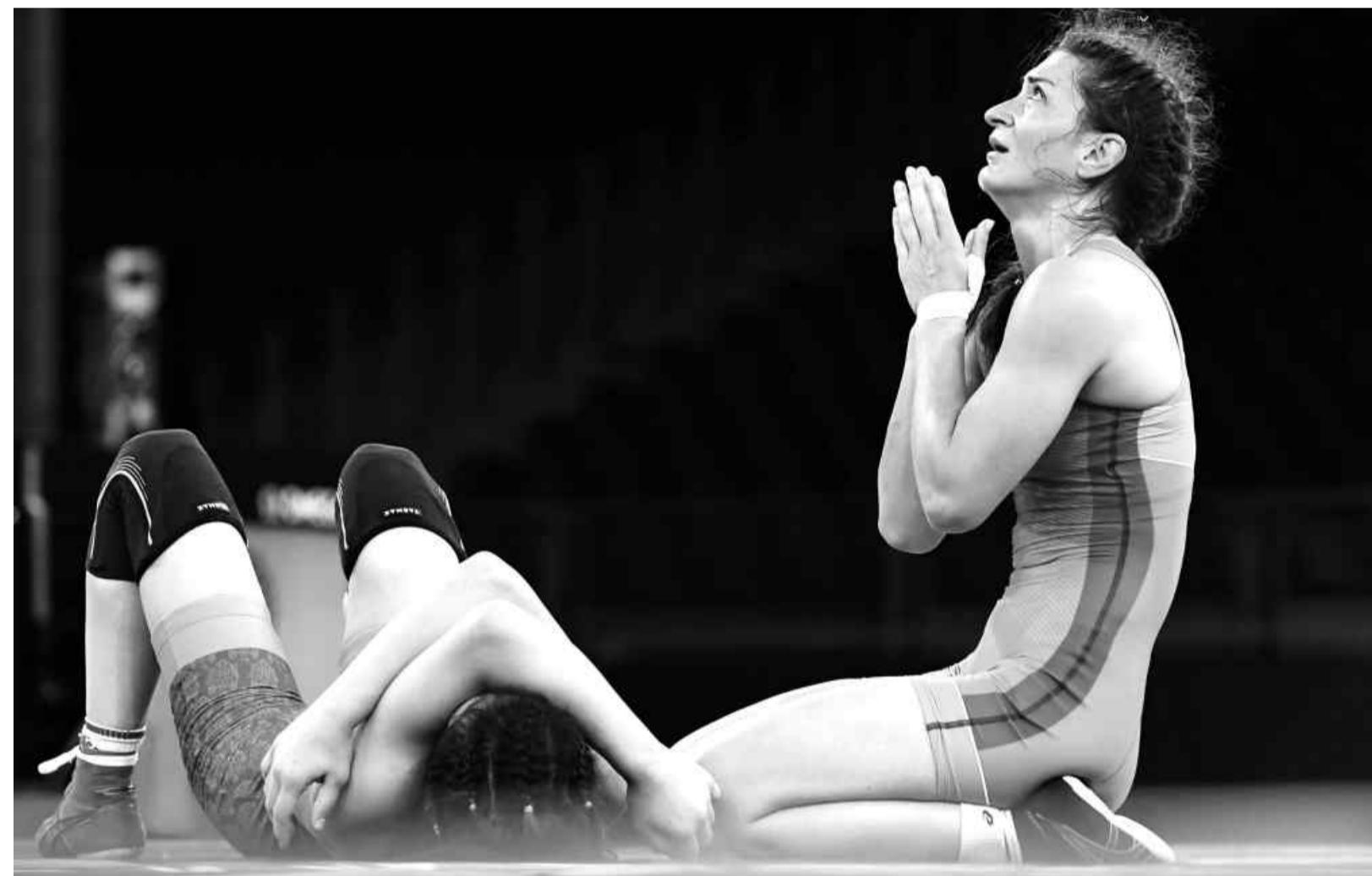
전웅태는 “오랜만에 종합 대회에 나오는 것이라 신기하다. 5년 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와는 또 다른 것 같다”며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마지막 남은 한 경기에서 제가 가진 것을 발휘해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 근대5종 경기는 5~7일 일본 도쿄의 무사시노모리 스포츠 플라자와 도쿄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5일에는 펜싱 랭킹 라운드, 6일에는 여자부, 7일에는 남자부 경기가 이어진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지난 4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웅태.



승자와 패자 4일 일본 지바 마쿠하리 메세 홀에서 열린 여자 레슬링 자유형 57kg급 준준결승에서 불가리아의 에베리나 니코로비(오른쪽)가 물도비의 아나스타샤 나키타를 이긴 뒤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11승…AL 다승 공동 1위

시즌 홈경기 첫 등판 7이닝 2실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캐나다 연고 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34·사진)이 홈팬들 앞에서 처음 승전고를 올렸다.

류현진은 4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7안타를 맞았으나 삼진 8개를 뿐으며 2실점으로 막았다.

투구 수는 99개였고 볼넷은 허용하지 않았다.



올 시즌 류현진이 등판할 때마다 화끈한 득점 지원을 하는 토론토 타선은 홈런 두 방을 포함해 장단 12안타를 몰아쳐 7-2로 팀 승리를 견인했다.

이로써 시즌 11승 5패를 기록한 류현진은 크리스 배싯(오클랜드 애슬레틱스)과 아메리칸리그(AL) 다승 공동 1위로 올라섰다.

평균자책점은 3.26에서 3.22로 떨어졌다.

류현진은 2019년 12월 23일 토론토와 8천만달러(약 930억원)에 4년 계약을 맺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그동안 훈련장에서 한 번도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10일 리그 재개 앞둔 KBO…전반기 기록 살펴보니

오승환 역대 첫 300세이브 고지 최정 16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

정우람 투수 최다 출장 기록

양의지 포수 첫 사이클링 히트

최형우 역대 12번째 2000안타

KBO가 올림픽 휴식기를 보내며 숨을 고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리그 중단이라는 사상 최유의 상황을 맞았지만 전반기까지 384경기를 소화한 KBO는 1위부터 6위까지 6.5게임 차라는 치열한 순위싸움을 전개했다. 순위 싸움 속 선수들의 기록도 뜨거웠다.

삼성 마무리 오승환은 4월 25일 KBO 첫 300세이브 고지를 밟았다.

기록의 희생양은 KIA였다. 100세이브, 200세이브의 상대 역시 공교롭게 KIA였다.

이후에도 오승환은 세이브 수확을 이어가면서 전반기를 322세이브로 마감했다. 현재 27세이브 리그 1위다.

한화 정우람은 투수 최다 출장 기록을 새로 썼다.

정우람은 6월 30일 대전 두산전에 출격해 LG 류택현이 가지고 있던 투수 최다 출장 기록(901경기)을 넘어섰다.

전반기까지 27경기에 나온 정우람이 남은 시즌에서 23차례 이상 마운드에 오르면 조옹천에 이어 역대 2번째 12시즌 연속 50경기 출장 기록도 달성한다.

타석에서는 최정의 꾸준함이 빛났다.

최정은 5월 18일 광주 KIA전에서 윤중현을 상대로 시즌 10호포를 만들며 2006년부터 16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 기록을 완성했다. KBO리그 역대 1위 기록이다.

6월 29일 문학 삼성전에서는 역대 4번째로 6년 연속 20홈런 기록도 작성했다.

최정이 버티는 ‘홈런 군단’ SSG는 4타자 연

속 홈런이라는 진기록도 만들었다.

6월 19일 대전 한화전에서 6회초 최정을 시작으로 한유섭, 로맥이 연달아 공을 담장 밖으로 보내 KBO리그 3번째 4타자 연속 홈런을 완성했다.

이원석과 박승규도 흥미로운 홈런 기록을 합작했다. 두 사람은 7월 11일 대구 롯데전에서 나란히 대타로 나와 연달아 담장을 넘기며 ‘연속 대타 연속 홈런 기록’을 만들었다.

NC 양의지는 포수 최초 사이클링 히트 기록 주인공이 됐다. 양의지는 4월 29일 대구 삼성전에서 올 시즌 처음이자 역대 28번째 그리고 포수 최초의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했다. 또 4타석 만에 기록을 완성하면서 최소 타석 사이클링 히트도 동시에 달성했다.

삼성의 김지찬은 1이닝 3도루 기록을 만들었다.

4월 17일 사직 롯데전에서 1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그는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2루 베이스를 훔쳤다. 팀이 타자일순이며 대거 득점에 성공했고, 김지찬이 1회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이번에는 좌전안타로 나간 김지찬은 2루에 이어 3루까지 내달리면서 1이닝 3도루를 완성했다. 1999년 삼성 신동주에 이어 역대 2번째 기록이다.

한편 KIA에서는 나주원이 5월 9일 안방에서 열린 두산과의 더블헤더 2차전을 통해 통산 54번째 1500경기 출장 주인공이 됐다.

김선빈은 4월 29일 광주 한화전에서 1100안타(통산 91번째)를 채웠다.

최형우의 기록도 이어졌다.

4월 20일 잠실 LG전에서 통산 12번째로 2000안타 고지를 밟았고, 7월 7일 대전 한화전에서는 900 4사구(9번째)를 기록했다. 이어 7월 9일 광주 KT전에서는 10번째 1000사사구 기록을 남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모가디슈
2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3관	블랙 위도우, 더 그레이트 샤크
4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5관	모가디슈
6관	모가디슈
9관	보스 베이비 2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신공룡
7관 씨네커플	방법: 재차의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신공룡 정글 크루즈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8관 씨네커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수를 보내다

독주와 서비스 II

Jae-yeon Won Piano Recital

2021. 8. 21. (토)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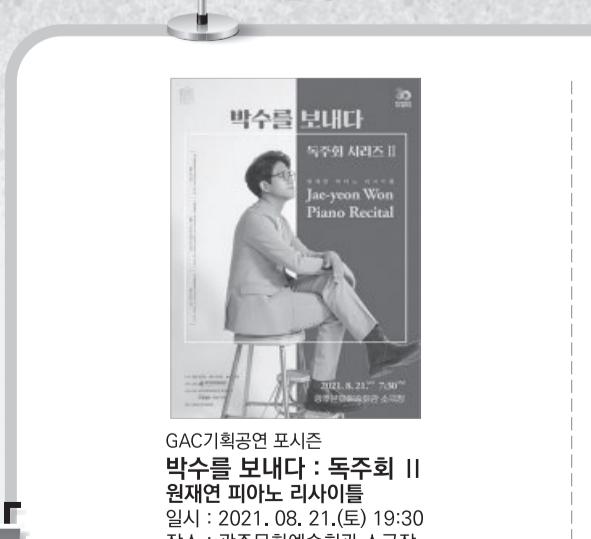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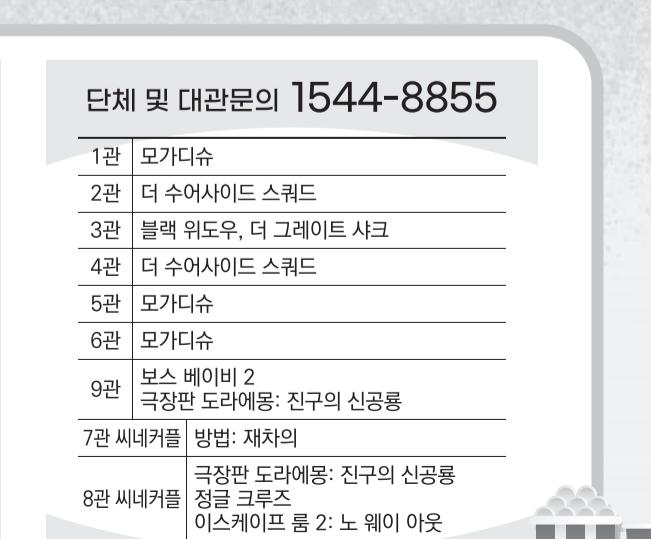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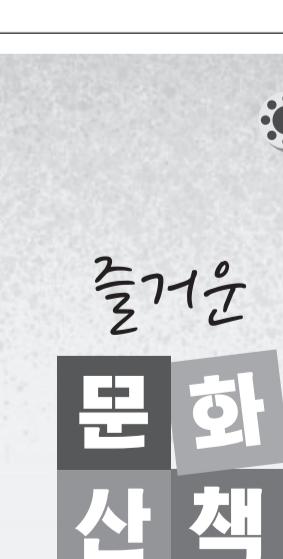
GAC 11시 음악산책 5

조진주, 소리너머

일시: 2021. 08. 25.(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수를 보내다

독주와 서비스 II

Jae-yeon Won Piano Recital

2021. 8. 21. (토)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